

연구논문

산업시대의 여성: 그 많던 여공들은 모두 어디로 갔는가?

박혜영*·박금식**

〈국문초록〉

1962년 ‘국가공업특구’ 지정은 지리적 환경과 결합하여 농산어촌 지역이었던 울산을 새롭게 구성하는 변화의 기폭제가 되었다. 이 연구는 ‘국가공업특구’ 지정 이후 산업수도, 생산기지이자 남성의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인지되어 온 울산지역의 산업화 과정을 함께 겪고 살아온 절반의 지역민인 여성의 삶을 고찰한다. 울산지역의 여성을 살펴보는 것은 한국사회의 산업화를 압축적으로 경험한 울산지역, 그리고 울산여성의 삶을 살펴본다는 데에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중화학산업이 극적으로 성장하기 이전, 국가와 지역 산업의 단초를 마련하였던 경공업 산업분야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여성들의 자취를 살펴보는 것은 산업화 속의 여성 그리고 산업의 변화와 여성을 살펴봄으로 지역사회와 국가 그리고 산업화 과정 속의 젠더를 이해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주제어: 젠더와 산업, 경공업 산업 여성 노동자, 울산 여성, 산업화와 여성, 산업화와 젠더

* 주저자, 부산대학교 여성연구소 객원연구원(alwayszoanne@gmail.com)

** 공동저자, 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위원(kspark@bwf.re.kr)

© 2015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1.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62년 ‘국가공업특구’ 지정은 대규모 중화학공업 단지로서의 지역 개발과 함께 대대적인 일자리 공급으로 인구 8만5천여 명 규모의 농·산·어촌 지역이었던 울산을 산업화, 중화학산업의 국가 공장으로 변모시켰다. 스콧과 킬리(Scott and Tilly, 2008)는 ‘산업화’를 인간의 통제나 의도를 벗어난 일종의 자율적이고 익명적인 과정으로 다루며 산업화가 사람들의 행동을 결정짓는 기준으로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불충분하다고 말한다.

이 연구는 1960년대 이래 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자리한 중화학공업의 중심지이자 국가의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해 온 울산지역 여성의 삶을 고찰하고자 기획되었다. 울산지역에는 인구의 절반을 약간 넘는 남성(51.7%, 600,224명)과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여성(48.3%, 561,521명)이 있다.¹⁾ 스콧과 킬리의 언급처럼 ‘산업화’와 그 관계가 충분히 설명되지 못한 이들이 비단 여성만은 아니다.

한편,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드러나는 문화현상은’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동일하고 우리의 모습은 점점 닮아가고’ 있어 ‘서울 다르고 울산 다른, 부산 다르고 울산 다른 문화를 찾기란’(오재환, 2006) 어려운 일일 수 있다. 그럼에도 산업화의 과정 속에서 여성, 특히 울산지역 여성을 이야기하고 특히, 산업 속 그녀들의 자취를 찾아보는 이 연구 의미는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근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고 자립경제의 근간을 만들어 온 한국 경제의 발전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컬어진다. 그러나 산업의 근간, 자립경

1) 2012년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제와 국가 경쟁력을 갖추는 중화학공업의 발전이 대부분 여성들의 노동력으로 일구어 낸 수공업과 경공업이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사실은 종종 잊혀지거나 생략되고는 한다. 그녀들의 자취를 고찰하는 것은 국가 전략산업 기지로 자리매김하는 과정 노동자로 그리고 지역민으로 살아온 여성의 삶과 사회적 역할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둘째, 산업수도의 위용만큼 푸른 작업복이 도시를 뒤덮는 울산은 생산과 남성, 소비와 여성이 등가로 통용되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에 대한 기억이나 기록이 그간 충실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울산 여성'을 이야기하고 그녀들의 삶을 일부나마 돌아봄으로 엄밀히 존재하여 온 여성들에게 가시적인 사회적 위치를 부여하고 동시에 그녀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후의 사회적 삶에 목소리를 가지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데에 의의를 둔다.

셋째, 지역을 살아가는 사람은 물론이거니와 산업 역군이었던, 혹은 지금도 여전히 산업역군인 울산의 여성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 또는 그녀들의 소리 없는 존재가 여전히 위기 시 어딘가에서 나타나 가장 먼저 구조조정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녀들을 기억할 수 있는 기록과 그녀들의 존재에 대한 물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이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자 의미라고 하겠다.

최근 몇몇 주요 경영진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개시한 이래, 2차적으로 1,300여명의 규모로 진행된 울산지역 중공업 분야 대규모 구조조정의 첫 번째 대상자는 다름 아닌 200여명의 장기근속 여직원들이었다.²⁾ 울산지역의 중공업 산업 내에 여성 노동자 또는 사무직 여성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일지라도 엄밀히 존재해왔고 주요한 역할을 수행해왔음을 우리는 구조조정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야 비로소 확인할 수 있다. 안정적인 경제상

2) 여직원들 외에 구조조정 2순위에는 과장급 이상의 사무직 근로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오마이뉴스』, 2015.6.1).

황 속에서는 100배 이상 많은 수의 남성 노동자와 근로자들에 가려 인지되지 못하던 그녀들은 ‘구조조정’이라는 사건을 통하여 인지되고, 그녀들의 존재는 산업과 노동시장에서의 마지막 순간, 위기의 순간에서야 비로소 알려지고 인지되고는 한다.

전쟁과 노동력 수급 부족 등 노동력의 보충이 필요할 때에 여성은 가장 먼저 호출되는 산업역군이며, 마찬가지로 종전과 경제공황, 일자리 수요의 부족 시 가장 먼저 노동시장에서 사라지고 자리를 잃는 이 또한 여성들이었다. 산업수도 울산을 중심으로 여성들이 산업화 속에서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은 그리 드물지 않은 일이었다. 비근한 예로 1998년 자동차 공장 식당(여성)노동자 144명 전원을 포함한 277명에 대한 정리해고의 경험, 이제는 거의 잊혀진 ‘화섬3사³⁾의 노동쟁의와 폐업의 경험, 울산의 ‘리벳공 로지’들은 산업 구조조정, IMF 경제위기 등 ‘위기’와 ‘고통분담’의 최전방에 줄곧 소환되어 왔다.

이 연구는 투입된 시간과 연구진이 가진 한계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으로 시도하는 울산 지역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이자, 산업화 과정의 여성들의 자취를 찾는다는 점에서 ‘옛보기’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려울 수 있다. 단혀있던 울산 여성의 이야기에 한 번의 자국을 댈므로 그녀들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야기해나갈 이후의 큰 물길에 작은 단초를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 이 연구의 마지막 의의이자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 하겠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그리고 한계점

산업시대 울산 여성을 살펴보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통계활용 그리고 대면 인터뷰의 세 가지 방법을 활용하였다. 문헌 연구를 통해 울산의 산업화 과정을 산업화가 미치는 영향, 특히 여성의 삶이 산업화에 어떠

3) 울산에 주요 공장을 두고 있었던 동양(효성) 나일론, 고려합섬, 태광산업을 주로 ‘화섬3사’라 불렀으며, 울산지역의 섬유업계의 전체 노동력의 1/3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이 여성들이었다(울산상공회의소, 1983).

한 변화와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가정’과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의 삶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이어 울산의 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환경으로 울산의 산업화 과정과 1962년 공업특구 지정 후 변화된 환경⁴⁾ 그리고 그 속의 여성을 살펴보았다.⁵⁾

두 번째로 통계 활용은 울산지역 인구 변화, 여성 경제활동 변화 양상 등에 대한 국가통계와 울산 및 전체 산업 변화에 따른 노동인구변화 그리고 경공업 산업 내 여성 근로자 현황 등은 선행연구에서 활용된 통계를 재인용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 인터뷰는 5명의 남성을 포함하여 총 16명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를 위한 심층 인터뷰 참여자 개요

연번	성(명)	연령대	특징	연번	성(명)	연령대	특징
1	이현숙	50대	중공업 사무직, 노동운동, 시의원 경력	9	박○○	30대	노동자 지원사무
2	김명숙	50대	대출, 화섬산업, 노동운동, 여성문화 교육 공동체 활동가	10	김○○	40대	노동자지원사무
3	미 상	60대	청소노동, 일용직	11	장○○	50대	자동차산업, 노동조합 간부
4	정○○	50대	자동차산업 생산직 근로	12	김○○	70대	퇴직 제조업 관리자, 남성
5	김○○	50대	화섬산업 근로, 노동운동, 정치인 경력	13	김○○	50대	중공업, 노동조합간부, 남성
6	이○○	60대	청소노동, 과거 자동차/방직 등에서 근로	14	조○○	50대	근로자지원, 중공업 생산직, 노동운동, 남성
7	김○○	50대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 대출	15	장○○	50대	자동차, 생산직, 남성
8	정○○	40대	전직,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	16	서○○	40대	민주노총 화섬지부, 남성

4) 이 부분은 울산상공회의소(1983; 2013)와 장병익(2006)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5) 울산 여성을 이해하기 위한 문헌들로는 김희재(2006), 오재환(2006)의 울산 여성과 출산 및 자녀 양육에 대한 울산 여성의 특징들을 참고하였고, 현대자동차 생산직 노동자의 아내로 노동조합활동가의 삶과 그 주변을 형성하는 가족, 특히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 조주은(2004)을 주요하게 검토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내용은 ① 개인이 기억하는 울산의 산업현장 속의 여성의 모습, 특징과 생활 ② 여성(혹은 남성으로서 보는 여성)의 울산에서의 삶 ③ 울산지역 산업 변화와 여성의 사회적 역할변화 ④ 남성도시로 인식되는 울산에서의 오늘의 여성의 삶 ⑤ 개인이 생각하는 울산 여성의 과거, 현재와 미래 등이다.

연구방법 및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노정된 한계점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이다. 먼저, 통계를 활용한 연구에서의 한계점은 울산지역이 행정구역상 '울산광역시'로 구분된 1997년 이전 울산지역 고유의 통계가 존재하지 않거나 또는 별도로 구분하여 추출하는 것이 어려움으로 일부 1997년 이전 지역의 상황과 여성의 삶에 대한 고찰은 유사한 산업시기를 경험한 국내 타 지역 또는 국가 통계나 문헌을 통하여 유추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였다.

두 번째로 인터뷰이의 다양성과 대표성의 한계를 들 수 있다. 산업시대 울산 여성, 즉 스스로 경공업 또는 수공업 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이 시기 산업화 과정에 어떤 형식으로도 직접적으로 개입하며 살아온 여성들로 1980년대 당시 최소 10대 중반의 이상의 연령에 속하였던 여성들이 인터뷰이로 가장 적정할 수 있을 것이었다.

그러나 60대 이상으로 방직공장으로부터 화섬산업, 자동차 부품 공장, 청소 노동자 등을 두루 거친 여성 노동자를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으며⁶⁾, 적지 않은 경우 이제는 은퇴를 한 이후로 그 시절의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지 않거나, 혹은 작고를 하시거나 지역을 떠나신 경우로 60년대와 70년대 울산의 산업화를 직접 경험한 여성노동자들과의 만남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 연구에서 선정한 인터뷰이는 10대 중반 이후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10년-20년의 근속경험이 있는 40대-50대 여성노동자들이 대부분이며, 특히 그녀들의 대부분은 직간접적인 노동조합 활동 또는 노동운동의 경험을 가

6) 본 연구를 위한 인터뷰이 선정 및 인터뷰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당시 울산지역 대학교 청소용역 노동자들의 단식농성이 이루어지는 와중이었다.

지고 있었다.⁷⁾ 동 연구에서 선정하고 인터뷰를 진행한 인터뷰이들은 그러므로 연령과 함께 대체로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 등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정도 다양성의 한계를 가질 수 있다.

2. 본론

1) 산업화와 여성⁸⁾

(1) 산업화와 여성 그리고 가정

산업화는 산업 현장과 같은 공적인 영역에서만 일어난 일이 아니다. 산업화는 새로운 직업을 만들고, 사람들의 이동을 유발하며 직업과 경제활동, 그리고 살아가기 위한 기준과는 다른 생활시간과 삶의 양식에 관련된다. 농촌국가의 모습은 해방과 한국전쟁의 종결 이후 근대화도시화를 통하여 변모되었고 우리 삶은 지역을 막론하고 과거와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지역과 지역민의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쳐왔다. 산업화에 의한 생산기술의 발달은 산업노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또한 크게 변화시켰으며, 남성의 삶과 마찬가지로 여성 삶은 산업화와 함께 가정에서 그리고 사회 속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① 생산과 분리된 가정과 여성

20세기 산업화와 함께 기술의 발달은 미국 가정을 생산 단위에서 소비

7) 노동조합, 노동운동 또는 시민운동 등의 활동을 하지 않는 여성노동자들을 찾는 것이 어려웠을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산업시대, 울산 여성노동자들의 삶과 그녀들의 사회적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성들은 스스로 노동자이면서 또 당시의 사회문제와 변화, 자신들의 권익과 필요 등에 관심을 가졌던 이들이라야 가능한 것이라는 가정 또한 배제할 수 없었다.

8) 이 부분은 박혜영(2011)의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단위로 변환시켰다(코완, 1997). 이전에는 집에서 만들었던 음식과 의복은 산업화와 함께 공장에서 생산되고 가정 내의 다양한 노동 일부는 점차 경제적인 의미를 잃어가게 되었다.

장작을 패거나 화덕을 옮기고, 무거운 물과 빨래를 운반하는 등 서로 다른 종류의 노동이지만 생산노동과 가사노동이 가정을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 어른과 아동이 함께 수행하던 과거의 생활양식은 산업화와 함께 달라졌다. 남성과 아동의 일이 여성의 일로부터 분리되고, 가정과 주부는 생산에서 소비로 그 중심 기능과 역할이 점차 이동하였다.

② 같은 시간, 다른 노동: 줄어들지 않은 가사노동

1965년 미국 여성들은 하루 평균 가사노동에 약 4시간, 자녀 돌봄 노동에 약 세 시간가량을 사용하여 일주일 평균 대략 54시간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었고, 여성의 가사노동 시간대는 1912년 부유층 주부, 1935년 농촌과 도시 지역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을 때에도 그 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결국 '취업하지 않은 아내들은 백년이상 매일 6~7시간을 사용하고 주간 50시간의 가사노동을 하고 있으며, 취업한 아내들도 대략 35시간의 가사노동을 한다.'⁹⁾

(2) 산업화와 여성 그리고 노동

① 일터를 떠난 적 없는 여성

여성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과는 많이 다르다(이배용 외, 1999). 산업화 이전 농경사회였던 한국 사회에서 여성은 비단 '농부' 또는 '농부

9) 취업한 아내를 둔 남성은 '아내가 집에 있는' 남성보다 가사노동에 약 10분을 더 보낸다. 여기에 어린 자녀가 있다면 또 10분을 더 보낸다(코완, 1997). 21세기에 이르러 가족 내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정도는 여러모로 적극적인 참여의 양상을 띄고 있으나, '평균적으로' 그리고 여전히 가사노동에서의 성역할 분리는 존재하고 있다.

의 아내'만은 아니었다. 여성들은 '궁녀'로 '기생¹⁰⁾'으로 '산파'로 '의녀'로 객주의 '주모', '침모', '유모' 등으로 경제사회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 이미 '전화교환수'로 수천명이 활동하였고, 여자 교원, 여의사, 부인기자, 보도, 간호사, 아나운서 등으로 살아온 기록들이 있다(이승원, 2011).

김정화(2002)는 1960년대 공업화의 본격적인 진행으로 가정에서 공장으로 눈에 띄게 이동한 노동의 장소의 변화가 근대적인 의미에서 '여성의 일'에 대한 관심과 기록이 가능하게 한 배경이라고 설명한다. 산업화는 여성들에게 임금노동자라는 새로운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실제 여성들은 언제 어디에서든지 일터를 떠난 적이 없었으며, '결혼을 했거나 하지 않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대부분의 여성들은 공장 이외의 장소에서 끊임없는 노동에 종사하였다는 것이다.¹¹⁾ 본격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는 밀집된 여성들의 사회적 노동을 공개적으로 드러나게 해주었으나, 그럼에도 여전히 대부분의 여성들은 통계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일에 참여해왔고, 특히 기혼 여성들은 육아와 가사를 동시에 병행할 수 있는 일을 끊임없이 해왔다.

② 여성, 다른 일자리와 다른 보상

여성은 남성과는 다른 일에서 다른 보상을 받으며 사회적 삶을 살아왔다. 노동시장 내의 여성의 지위가 남성의 그것과 다른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학자들은 성별 격리현상(Sex Segregation) 또는 성별 직업 격리현상(Occupational Sex Segregation)으로 설명한다(기든스, 2009; 소콜로프, 1996).

10) 이승원은 기생의 역사는 매춘의 역사와 다른 국가가 기획한 여성들에 대한 일종의 노비 제도라고 소개한다. 고려 때부터 존재한 기녀들은 여성의 결혼을 금지하고 신체와 예능, 성을 착취하였고 조선은 이 제도를 계승하였다고 한다. 1738년 선상제(3년마다 한번 뽑아서 기악 등을 가르쳐 국가의 각종 의식과 연회에 동원하는 제도)의 폐지 이후, 일부 기녀들이 시장으로 진출하며 '기방'이 등장하였다고 한다(이승원, 2011).

11) 행상, 인형옷 만들기, 봉투만들기, 레이스 달기 종이꽃 만들기, 수놓기, 화장품 판매원, 가정부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논밭에서, 공장에서, 거리와 가정 어느 곳에서나 일을 해왔다.

초기 산업화단계, 숙련도와 기술 집적도가 낮은 수공업, 경공업 분야 섬유·의복·신발 등의 산업 분야에 여성이 집중되었던 현상이나 가사노동과 유사한 돌봄¹²⁾ 노동과 사무 보조 및 고객 응대 부문을 주로 여성이 전담하는 것 등은 이러한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노동과 관련된 성별 격리현상은 분리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집중되어있는 영역의 저임금화와 동시에 여성 노동력에 대한 사회적 저평가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③ 진지하게 여기기, 진지하게 받아들여지기

성별에 따른 '다른 가치부여'는 비단 일 또는 직종과 관련되어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다. 우드(2007)는 리치(Adirenne Rich)의 연구를 통해 남학생은 교육과 성취평가의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진지하게 여겨지는 반면, 여학생은 때로 그렇지 못하는 사례를 소개한다. '여학생을 진지하게 여기기 (Taking Women Students Seriously)'라는 제목으로 실시된 리치의 연구는 여학생들은 주로 외모, 성격, 돌보는 성향으로 칭찬받는 반면, 학업 능력과 성적으로는 특별히 주목받거나 격려 받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교수들은 남학생의 아이디어에 흥미를 보이고 더 독려하며 학문적으로 더 진지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학업이 아닌 외모에 대한 칭찬에서부터 고학년 학생에게 요구하는 성적 애정 표현까지 여학생은 지적 능력이나 열망보다 그녀들의 성이 더욱 두드러지는 사회화를 교육과정 동안 겪는다. 여학생, 즉 여성들은 지적 공동체의 일원으로 진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이다(우드, 2007).

12) 보육, 돌봄, 간병, 교사, 보육교사, 부모 등.

2) 산업화와 울산여성

(1) 울산 여성에 대한 선행 연구

1930년대 신민요 울산타령은 울산 여성을 큰 애기의 열두 폭 치마와 같은 넓은 마음을 가졌다고 전한다. 가수 김상희씨가 부른 '상냥하고 복스런 울산 큰 애기'는 점차 거대도시의 여성들이 갖는 생활상의 특징으로 울산 여성을 변모시켰다(김희재, 2006).

오재환은 전국적으로 가장 높은 출생자녀 성비불균형이 존재하였던 울산의 특징이 공업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도시의 문화가 남성중심으로 흐르는 작용 때문(오재환, 2006)이라 설명한다. 중화학공업을 선도하던 상징적인 도시이며, 남성중심의 중화학산업 문화가 반영된 결과라는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는 그러나 실제 울산 여성의 직접적인 모습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으며, 그녀들에 대한 설명과 기록들은 여성의 삶 자체로 다루어지기보다 주로 '산업구조적 특성으로 말미암은 낮은 경제활동'(김희재, 2006), 고소득 남성 노동자 또는 높은 소득의 배우자의 편제와 남성중심의 근로문화에 의한 공적영역에서의 비가시성 등에 비추어 묘사되는 경향이 있다.

한편, 울산 여성에 의해 직접 기술된 대표적인 기록으로 조주은(2004)을 들 수 있다. 자동차 공장노동자인 남편을 따라 울산으로 이주했던 그녀는 2000년 전후, 자신과 주변의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 활동가 아내들의 삶을 통해 울산 여성의 삶을 기록한 바 있다. 여성의 구체적인 일상을 접사(接寫)하여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그녀의 기록은 남편인 근로자의 삶이 주로 중심점이 되어 기술되었다는 점에서 울산 여성 전반에 대한 기록이라고 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산업화가 진행되는 와중에서의 남성노동자들의 가족생활과 직장문화, 아내들의 삶 등을 통해 당시의 지역사회 분위기와 문화 등을 엿볼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된다.

(2) 산업화와 울산지역

① 늘어난 일자리와 폭발적인 인구 증가¹³⁾

산업화와 더불어 20년이 채 되지 못한 시기 150%p, 40여년 만에 약 400%p¹⁴⁾에 이르는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경험한 울산지역은 1962년 공업센터 지정 당시 경제활동 인구의 71.4%가 농림수산업에 종사하고 있던 전형적인 농어촌지역이었다. 공업센터 지정과 시(市) 승격 5년만인 1967년 공업도시로의 변화를 보여, 경제활동인구 중 농림수산업 종사 근로자 비중이 50% 이하로 떨어지고 제조업과 건설업 분야 종사자가 25%, 상업과 서비스업 분야 종사자 35%로 상공업도시 초기단계 면모를 갖추게 된다.

〈표 2〉 울산지역 인구변화 추이

(단위: %, 천명)

	총인구	증가율	남자	비중	여자	비중
1962	211,735		104,770	49.5	106,965	50.5
1965	222,965	5.3	110,995	49.8	111,970	50.2
1970	275,361	23.5	139,267	50.6	136,094	49.4
1975	368,612	33.9	189,020	51.3	179,592	48.7
1980	535,348	45.2	276,097	51.6	259,251	48.4
1985	670,358	25.2	345,618	51.6	324,740	48.4
1990	805,904	20.2	417,785	51.8	388,119	48.2
1995	969,196	20.3	498,774	51.5	470,422	48.5
2000	1,044,161	7.7	536,088	51.3	508,073	48.7
2005	1,095,105	4.9	563,847	51.5	531,258	48.5
2010	1,142,341	4.3	589,180	51.6	553,161	48.4

13) 이 부분은 울산상공회의소(1983; 2013)와 장병익(2006)의 논의를 요약하여 정리하였기에 본문에서는 별도의 참고문헌은 표기하지 않았다.

14) 1960년 대비 인구증감율 1980년 152.84%p, 2000년 393.15%p, 2012년 449.92%p가 증가하여 50년의 시간 만에 울산지역 인구는 500%p 가까이 증가하였다.

	총인구	증가율	남자	비중	여자	비중
2012	1,164,369	1.9	601,551	51.7	562,818	48.3

자료: 울산광역시, 2014.

10여년이 지난 1972년 울산지역의 제조업 분야 종사자가 전체의 38%에 이르므로, 지역 내 고용의 상당부분이 제조업종에서 이루어지며, 산업도시의 기반이 더욱 확대되었다.

지역민이 종사하였던 주요 산업분야 역시 변화되어, 1962년 전체 제조업 종사자의 70%가 식품, 건축자재 및 성냥 등의 생산에 종사하였던 것이 1970년에는 석유정제 및 관련 화학·섬유업 종사자가 53% 그리고 기계 및 장비업 종사자가 30%에 이르러 2차 산업의 집적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2차 산업 발전의 초기 단계의 노동집약적 경공업(섬유, 방직, 봉제, 식품 등)의 비중은 이후 1980년대 노동집약적 자동차·중공업 등에서 노동력 수요 급증으로 기계 및 장비업이 68%로 압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며, 대규모 장치산업인 화학공업의 비중이 18%로 급격히 감소하기에 이르러, 지역 산업에서 자동차·기계·중공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¹⁵⁾

15) 경제개발5개년 계획 제1차(1962-1966) 화섬, 시멘트, 비료, 정류, 전력 등 생산계 공업 발전 주력, 제2차(1967-1971) 합성섬유, 석유, 화학, 기계류, 전자공업, 영남화학, 한국 비료공업, 동양나일론, 울산직물, 현대자동차, 동해전력 건설, 제3차(1972-1976) 각 부문 간 정비와 기계, 제철 중점 개발 주력, 염포 미포지구 자동차 및 조선공업 본격 건설 가동, 현대조선소, 신경합섬, 한남화학, 삼양특수강, 동해조선, 진양화학 등 14개 주요 공장 준공, 현대서비스 공장 등 8개 공장 착공, 제4차(1977-1981) 중화학공업육성, 지식산업개발, 이후 기간산업 및 이와 관련된 산업을 묶어 하나의 공업단지 형성 시너지를 높인다(장병익, 2006).

〈표 3〉 증업원수 기준 울산지역 산업구조 변화(1986-1991)

(단위: %, 천명)

구분		1986년	1991년	1995년
1차 산업(농림어업)		0	0	0.2
2차산업	광업	0.1	0.1	0
	제조업	57.3	58.5	47.6
3차산업	전기가수도업	0.8	0.7	0.4
	건설업	4.9	4.6	5.8
	도소매음식숙박업	19.9	19.6	21.9
	운수창고통신업	3.1	2.7	4.3
	생산자서비스업	4.6	3.7	7
	사회개인서비스업	9.2	10.1	12.8
계		100.0(183)	100.0(242)	100.0(328)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2013.

② 병영적·규율적 근로문화

김준(2003)은 1970년대 울산 조선소 노동자들 삶과 근로 문화 특성을 조명하며, 이 문화가 ‘힘자랑’, ‘무질서와 일탈’, 그리고 남자들끼리의 몰입 등이 복합된 것이라고 근로자들의 구술을 통해 간접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정승국(2003)은 반면, 생산직과 사무직, 정규직과 비정규직 그리고 대학졸업자와 아닌 자와의 사회적 거리감이 존재하는 조선소와 달리, 철저히 위계화와 된 노무관리체계가 존재하는 자동차 공장의 문화는 병영적이며 군대규율과 유사하게 조직되어 있었다고 설명한다.

무질서하고 일탈이 병행된 의기투합이 강한 근로문화인가 또는 위계화, 체계화되어 있는 군사 문화적 근로문화인가의 차이가 있을진대, 중공업과 자동차산업이 절대적인 부문을 차지하고 있는 울산지역의 이러한 근로문화¹⁶⁾, 남성들의 낮 시간동안의 삶의 문화는 특히 남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16) 노동자(勞働者, 문화어: 로동자) 또는 근로자(勤勞者)는 사용자(使用者)에게 노동력을

이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여성과 가족에게 또 하나의 특수한 환경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③ 노사갈등, 대규모 노동쟁의 경험

1987년 전국규모의 시민운동의 발발은 울산지역에 강력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전쟁을 방불케 하는 대규모, 고강도 파업¹⁷⁾으로 이어졌고, 이후 울산지역에는 크고 작은 분쟁이 '노사갈등'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재현되었다.

〈표 4〉 울산광역시 노동쟁의 발생건수

구분	1987-97*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쟁의발생건 수	307	3	6	7	10	19	12	15	29	13	15
쟁의일수	-	89	79	148	101	592	440	580	650	215	512

자료: 울산상공회의소, 2013.

참고: 1987-97년 발생건수는, 장병익, 2006.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며 공장 가동률이 40%로 급락하였던 현대자동차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이다. 고용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피용자(被用者), 피고용인(被雇用人)이라고도 하며, 임금을 받고 노동한다는 의미에서 임금노동자 또는 임노동자라고도 한다. 반대로 노동력을 제공 받는 쪽을 사용자나 고용주라고 한다(위키백과)는 사전적 정의로 알 수 있듯 노동자와 근로자는 그 뜻에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노동자는 육체노동을 중심으로 근로자는 정신노동까지 포함하는 범위이거나 사용자와의 계약 또는 일하는 당자의 사용자에 대한 의지의 차이, 혹은 한국사회사속의 두 용어의 중요 사용자에 따라 노동자와 근로자라는 단어를 다르게 보거나 해석해야한다는 논의가 분분한 것은 사실이다. 인터뷰를 진행하며 연구자들은 '근로', '근로자', '근로문화'라는 용어를 통일적으로 사용하였으나 인터뷰이들은 대체로 근로자라는 용어보다는 노동자라는 용어를 선호하였고, 그렇게 불러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에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노동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동일한 의미로 종종 '근로', '근로자', '근로문화'라는 용어를 병용하였다.

17) 80년대 말 '콜리아웃투쟁'으로 전투적 노동운동의 대명사로 잘 알려진 현대중공업 노조. 이로 인해 현대중공업은 1990년대 초반까지 '파업과 직장폐쇄'의 악순환이 이어졌고, 87년부터 94년까지 총 290일 파업으로 1조 4,226억원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 2005).

차의 수급불균형 개선을 위한 구조조정 및 고용조정으로 발생한 대규모 파업은 144명의 식당근로자(전원 여성)이 포함되어 있었다.¹⁸⁾ 이외에도 1999년 현대정공 구조조정 반대투쟁, 2001년 효성, 태광산업, 대한화섬과 고려합섬 등 화섬업종에서의 정리해고 등에 반발한 대규모 파업, 2005년 건설플랜트 노조의 발주회사 상대 76일간 파업 등 ‘산업수도’, ‘부자도시’로 인식되는 울산지역의 산업을 중심으로 한 역사 속에는 다른 지역과는 다른 어려움이 존재해왔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에 더욱 빈발하는 ‘비정규직’ 관련 분쟁들은 긴 근로시간, 소득 격차 그리고 노동쟁의 세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지점이자 연속체이기도 하다.

표면적으로 여성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것이 없어 보이는 산업화, 근로문화, 노동시장 내의 갈등과 긴장과 같은 특징들은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여성, 그리고 함께 일하는 울산 여성들에게 직간접적인 영향과 변화를 끼치는 주요한 환경들이었다 할 수 있겠다.

(3) 산업화 속의 울산 여성, 그녀들은 누구인가?

폭발적인 인구증가를 거친 울산에는 생산을 위해 도시를 찾아온 남성들 못지않게 많은 여성들의 인구 유입이 있었다. 2010년 현재, 울산 여성의 51.4%가 타 지역 출신이며, 생산가능연령대 여성(약 387천명)의 60.8%(약 235천명)가 타 지역에서 유입인구이다.¹⁹⁾

18) 정리해고자 277명 중 일반 사업부 133명, 식당 여성조합원 144명, 노조가 식당 운영권을 인수받아 고용승계 형식을 빌려 정리해고를 했다. 해고된 조합원들은 부당한 정리해고 취소를 위해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유경순·정경원·김원, 2009).

19) 외지로부터 유입된 인구는 남성(50.9%)보다 여성(52.4%)쪽이 오히려 더 많으며 특히 30-50대까지에서 그리고 75세 이상 인구에서 타지 출신여성의 비율이 더욱 높게 나타난다.

〈표 5〉 울산시민 5세단위 연령대별 타지 출신 인구 비율

	전체	타시도	%	남자	타시도	%	여자	타시도	%
합계	1,058,070	546,402	51.6	535,514	272,572	50.9	522,556	273,830	52.4
0-4세	54,589	5,185	9.5	28,854	2,720	9.4	25,735	2,465	9.6
5-9세	57,562	9,252	16.1	30,599	4,726	15.4	26,963	4,526	16.8
10-14세	81,837	15,588	19.0	43,374	8,151	18.8	38,463	7,437	19.3
15-19세	79,744	18,584	23.3	43,627	9,906	22.7	36,117	8,678	24.0
20-24세	48,907	15,281	31.2	23,278	7,490	32.2	25,629	7,791	30.4
25-29세	75,874	33,028	43.5	39,142	17,339	44.3	36,732	15,689	42.7
30-34세	85,522	48,025	56.2	44,206	24,946	56.4	41,316	23,079	55.9
35-39세	95,270	63,710	66.9	46,628	30,867	66.2	48,642	32,843	67.5
40-44세	105,630	77,836	73.7	52,046	37,806	72.6	53,584	40,030	74.7
45-49세	105,499	80,736	76.5	54,492	41,358	75.9	51,007	39,378	77.2
50-54세	91,148	68,139	74.8	46,506	34,665	74.5	44,642	33,474	75.0
55-59세	61,312	43,687	71.3	31,651	22,218	70.2	29,661	21,469	72.4
60-64세	40,042	26,631	66.5	20,823	13,946	67.0	19,219	12,685	66.0
65-69세	27,652	16,782	60.7	13,249	8,098	61.1	14,403	8,684	60.3
70-74세	20,902	11,198	53.6	9,023	4,887	54.2	11,879	6,311	53.1
75세 이상	26,580	12,740	47.9	8,016	3,449	43.0	18,564	9,291	50.0

자료: 통계청, 2010.

① 구체적이지 않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그녀에 대한 기억

기억을 가지고 살기에 60년은 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자동차 산업, 조선과 중화학 산업 공장이 만들어지고 일자리를 찾아 많은 인구들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터전으로 사택(社宅)과 주거지가 조성되는 사건들이 이어졌던 것에 비추어보면 60년의 세월을 기억하기에 어려운 장 시간이라고 만든 할 수 없다. 그러나 ‘울산 여성’ 특히 산업화 과정에 존재 하였던 여성에 대한 기억은 흔치 않아 울산지역에서 ‘여성’을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은 모든 인터뷰이에게 낯선 것이었다.²⁰⁾

여자들은 저기 많았지. 동양나일론 ... 글썄요. 뭐 특별한 기억은 없어요. 기숙사에서 주로 지내지 않았나? ... 일하는 사람들은 다 남자들이었고, 여자들, 이즘마들은 밖에서 포장하는 데에는 좀 있었지(전직 제조업 관리자 70대, 남성).

여자... 온산공단에는 여자들이 별로 없습니다. 대체로 정유회사라면 여자들이 없죠. 설비중심이 아닌 노동집약적인 산업에 일반적으로 여자들이 근무를 많이 하겠죠 ... 남편들이 돈을 잘 버니까 굳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안 해도 되고 아이 키우고 공부도 신경 쓰고... 뭐 그렇지 않을까...(화학산업 생산관리직, 40대 남성).

연구진이 ‘산업시대 여성’을 주제로 울산 여성의 이야기를 고찰하고 있다는 것을 들은 서울의 한 여성 시민운동가는 ‘서울 여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울산 여자’인데, 남편의 높은 임금, 일하지 않아도 되는 가계수입, (문화회관) 스포츠로 단련된 몸과 건강, 쇼핑하며 아이들 키우는 것으로 알려진 울산의 여성들은 ‘쉬크(chic)’함으로 주로 부러움의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울산 여성(여자)들은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고소득 남편을 가진 부인들로 정의되고 있다 하겠다.

한편, 온산공단과 자동차 공장, 중공업단지에서 만난 남성근로자들이 기억하는 ‘울산 여성’은 전체적으로 두 부류로 반복적으로 기술되었다. 울산에서 여성 또는 ‘울산 여자들’이 ‘근로자(노동자)들의 아내’로 좁혀지면 자동차 공장 정전사태와 관련된 모 나이트클럽 이야기 그리고 어느 대기업 간부 사모님이 뽀뽀아줌마²¹⁾로 나오는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²²⁾

20) 인터뷰이 뿐만 아니라 연구주제에 관심을 가지는 대부분의 울산 사람들은 과연 ‘울산 여성’을 정의할 수는 있는가에 대하여 회의적이기까지 하였다.

21) ‘뽀뽀’ 또는 ‘뽀뽀 아줌마’라고 불리우는 여성들은 대부분 ‘노래방 도우미’들에 대한 총칭이다. 노래방에서 최초로 ‘뽀뽀 아줌마’가 생긴 도시로 울산 또는 창원이 언급된다. 장시간 근로 이후 일상이 된 음주와 성을 중심으로 한 휴식문화가 남성의 노동을 중심으로 하는 자동차, 조선, 중화학공업이 집중된 지역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신랑이 일하러 다니면 바람피우러 다닌다는 이야기는 많지요. 뭐 사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어느 회사 간부 사모님이 노래방에 뺨뺨로 나왔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실제로 바람을 많이 피우는가는 여자들의 경우는 잘 모르겠지만 현장에서는 ‘애인하나 없으면 바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남자들의 문화라는 게 그렇고 일하고 집에 가고 이십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다양한 활동이 가능한 주변 환경은 없었으니까 쉬는 건 주로 술을 먹거나 뭐...(화학산업 생산관리직, 40대 남성).

노동조합 간부로 활동중인 여성 인터뷰이는 ‘술’, ‘여자’, ‘회식’ 문화가 빚어내고는 하였던 80년대 울산 공단 내 월급날 풍경을 이야기하며, 울산에서 여성에 대한 기억이 편향된 문화를 설명하기도 하였다.

방어전에 가면 명덕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은 모두 술집이었지. 외국 술집도 많았고...중공업도 자동차도 월급타면 월급을 노란봉투로 주지 않았나 ... 우리 신랑도 마찬가지로 있었어요. 월급날이 되면 사람이 오질 않아. 신랑 찾으러 회사 정문 앞까지 가야했지 ... 그날은 집에 안 들어오는 날이라. 밤새도록 술 먹고 화투치고 ... 그리고 돌아오면 돈은 하나도 없고. 그때 만해도 외상을 쫓거든.. 방세를 줘야하는데 돈도 안가지고 오고 오지도 않고 ... 배가 이만큼 불러서 남편을 기다리러 회사 앞에 간 적이 있었지. 정문 앞에는 술집 마담들, 엄마들, 마누라들 애 업고. 자동차도 중공업도 모두 다 그런 진풍경이 봉급날이 되면 펼쳐졌어요(노동조합 간부, 50대 여성).

도시에 대규모로 유입된 남성노동자들은 대체로 젊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일하는 데에 사용하였던 과거 울산지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하는 남성들이었기에 ‘여성’은 한정적인 시간과 공간, 관계 속에서 만나는 이질적인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22) 이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의 이야기 속에서 직접 보거나 겪은 이야기가 아닌 ‘내가 아는 누군가의 누구’인 것은 동일하였다. 뒤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화성산업 여성근로자들은 이런 경향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여성들은 남성들의 이런 기억과 이런 회자가 왜곡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해서, 일상적인 삶의 모습에 대비하여 극적으로 부풀려지고 회자되는 이야기들이며 사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것이라는 데에 전반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코스가 있어요... 반회식하고 반회식이 끝나고 나면 타 지역에서 (아가씨들이) 원정도 와요. 자동차 돈 좀 풀리면 실제로 그렇게 왔지. 아니면 단체로 차타고 부산, 대구 등 인근도시로 나가서 놀다가 돌아왔던 시절도 있었죠. 많았죠. 가정주부들이 문란하다고? 일하고 회식하고 술 먹고 노래방가고 집에 들어오면 시끄럽다 그러고. 밥 먹자 그러고 귀찮아하고, 애들한테 별로 신경 안 쓰고 ... 그런데 왜 아내들이 문란하다는 이야기가 그렇게 많은지...(노동조합 간부, 50대 여성).

(회식공장에) 회식문화요? 왜 없었겠어요? 자동차나 중공업처럼 남자들이 많지는 않아서 뭐 차이는 있었겠지만, 우리도 회식문화가 있었죠. 술도 마시고 조별로 어울리기도 하고 때론 연애도 하고... 젊기도 했으니까요 ... 자동차 부인들이 뭣 하러 그런 일을 하겠어요? (웃음) 공장에 취직 안 해도 되고, 전업주부로 살 수 있는데 ... 뭐 누구 이야기들처럼 IMF에 쟁의에 해고에 일시적으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백에 하나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사람 사는 건데 무슨 일인들 없을까요 ... 남자들은 하루 밤에도 별 일을 다 하면서 그런 일 한 건은 온 도시를 도배하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남편은 한 순간 불쌍한 사람이 되고. 빼빼했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님 얼마나 외로웠음 했겠나? 안 그런가요? 남자들은 맨날 밤마다 빼빼하고 놀면서 ... 아무튼 문란한 여성으로 자동차 정규직 부인들은 문란한 여자들로 ... 참 끈질기게 없어지지 않는 이야기예요...(전직 회식산업 생산직근로, 40대 여성).

이야기의 진위여부를 떠나 이들 이야기가 그렇게 오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반복적으로 재생산되고 부풀려지는 이유 중 한가지로 조주은(2004)은 장시간 근로와 주야간 교대 근무를 해야만 하는 '남편들의 불안감'

에서 찾고 있다. 일도 함께하고, 회식도 함께하고, 주말 휴식도 함께하는 생활에서 '사람 살다보면' 있을 수 있는 작은 하나의 사건도 빠르게 퍼지는가 하면, 근원적으로 가족이나 아내를 충분히 돌볼 수 없는 환경 속에서 '불안감'으로 빠르게 과장되어서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가족들의 생활에 대하여서는 거의 신경을 쓰지 못하고, 삶 자체에 대한 관심을 별로 가지지 못했지요. ... '지시'나 지휘체계가 무척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회식할 때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 자리배치부터 직급별로 양옆으로 나란히 앉고, 숫자도 엄청 많아요. '봄대'라고 불려요 크레인에 팔처럼 뻗은 부분을 제일 뒷사람이 상석 중간에 앉아 술잔을 들면 누군가 소리치죠, '봄대 앞으로!' 그러면 모두들 팔을 뻗고 큰 소리로 구호처럼 외치며 원샷하죠. 그제 들고 들고 ... 엄청 많이 마시죠. ... 아마 실제로 보시면 군인들 같아 보일거예요. 이런 생활이나 문화에 아주 익숙하고, 또 그것에 대해 별다른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일하고 술 마시고 ... 남자들만의 세계죠(노동조합 간부, 50대 남성).

울산의 여성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이들로 인지되기보다 남성노동자 또는 남성노동 과정의 회식문화, 노동자인 남편의 배경으로 구체적이지 않은 '아내'이거나 또는 그들이 경험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모호하게 정의된 채 남아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② 울산 여성과 울산 여성 노동자

산업화는 생산현장에 여성, 특히 어리거나 젊은 여성을 대거 등장시켰다. 김원(2006)은 산업화 이후 여성들의 삶을 고찰하는 과정에서 공장에서 일 하였던 여성들의 삶은 가족들을 위한 희생이라고 보기보다 '공적 영역'에 대한 강렬한 욕구와 더불어 '향학열'을 가진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젊거나 어린 여성들에게 공장은 농촌지역에서 꿈꿀 수 없었던 경제력과 다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회

이자 발판이었다는 것이다.

공장 내 학교에서의 중등교육의 기회는 오빠나 남자형제들에 밀려 생계와 가사 일을 도맡아하였던 어린 딸들에게 교육과 자립적인 삶을 위한 희망이었을 것이며²³⁾, 사회상의 변화와 함께 ‘공순’이라는 비하의 담론이 있었던 1970년대의 분위기와 달리 산업화 초기 여공들은 시골에서 상경하여 ‘식모’나 ‘애보기’로 주로 일하였던 젊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현대적이고 자립적인 직업 중 하나였다.

그러면 일하는 여성, 산업화 속의 울산 여성, 노동하는 울산 여성들은 누구였을까?

스스로 노동자였거나 노동자가 되어 노동운동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은 김원이 언급하는 이들 여성의 삶을 잘 기억하고 있었고, 이현숙²⁴⁾씨는 ‘울산의 여성’, 산업시대 그녀들은 다름 아닌 직접 산업화에 참여하였던 여성 노동자들이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서 태어나서 자란 우리 친구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때는 경주보다 훨씬 작은 도시였거든요. ... 추억이란 게 농사짓고 나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거고 70년대 말 방직공장이나 여성노동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공장들이 선경직물들이나 이런 게 생기면서 외부에서 유입되는 노동자들하고 울산에서 살아온 친구들하고 이렇게 울산여성을 구성

23) “저소득층 가족일수록 교육 기회에 있어서 아들과 딸 사이에 차별이 분명해졌고, 이 과정에서 가족 내 젠더 관계(gender relationship)의 불평등이 재생산되었다. ... 가족들은 가족의 사회적 상승을 위해 ‘남성’ 자녀-이른바 ‘미래의 가부장’의 교육에 가족 구성원의 소득 및 자원을 공동 출자하는 경향이 강했다.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미혼 딸들의 기여는 매우 크고 중요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가족의 생계 위협을 받게 되었을 때 누구보다 먼저 딸의 취학을 중단시키거나 어느 아들보다 먼저 노동시장에 방출하고, 결혼을 늦추는 등 가족의 생계 책임을 거의 딸에게 의존시키는 것이었다” (김수영, 2001; 김원, 2006에서 재인용).

24) 울산여성을 졸업하였고 현대중공업 사무직 근로자였고, 노동운동활동가를 거쳐 정치인으로 활동한 이현숙씨와의 인터뷰 내용은 전체적으로 다른 인터뷰를 정리할 수 있는 종합적 내용들이었기에 실명거론과 함께 전체적으로 기술에 포함하였다.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외부에서 유입된 저 같은 사람 학교로 왔든 공장으로 왔든 필요해서 취직을 했던 친구들 그 이후로 세대들이 결혼해서 부인으로 단순히 결혼해서 오게 된 어거지로 남편으로 오게 된 3가지 케이스예요(이현숙).

이현숙씨의 말을 빌어 정리하자면, 울산 여성은 울산에서 나고 태어난 여성, 일자리를 찾아 혹은 일자리와 함께 학교를 다니기 위해 외지로부터 유입되어 온 젊은 여성, 그리고 남편의 일자리를 위해 함께 이주하였거나 일하는 남편의 아내가 되어서 울산으로 시집온 여성의 세 가지 정체성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이현숙씨는 이들 중 ‘울산 여성’은 남편의 배경인 여성이기보다 적지 않은 수로 실제 산업화에 참여하였던 여성, 이곳이 고향이든 혹은 외지로부터 고향을 떠난 여성이든 울산의 산업화에서 여공으로 여성근로자로 살았고 지금도 울산에서 살아가는 여성들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면 일하는 울산 여성들의 모습은 어떠하였는가?

수도권에서 나고 자랐으나 일자리를 찾아 울산으로 옮겨와 방직공장과 화섬사에서 20년 이상 근로하였던 여성 인터뷰이는 당시 태광산업이나 태화방직에는 약 3,000명 정도의 여공들이 있었다고 기억했다. 그녀는 울산의 방직공장 분위기가 수도권과는 사뭇 달라, 울산지역은 대체로 일만하는 분위기였다고 덧붙여 설명하였다.

거기(태화방직)는 태화여중고가 있어서 일정 시간되면 학교를 보내주는 ... 그래서 어린 애들이 많았던 거지 중학교도 보내주고 고등학교도 보내주고 ... 내가 위쪽 지방에 있을 때는 학기 시작되면 애들이 차로 와서 쪼끄만 애들이 막 내려 대체로 정선 이런데서 많이 오고 전라도 쪽에서 많이 왔지 그러면 애들이 5시 땡하면 애들이 학교를 가잖아 그럼 사실 공장에 남아있는 애들은 얼마 안 돼. 일하러 새 학기가 되면 졸업하잖아 그러면 중학교 졸업한 애들이 오는 거지 그리고 때 되면 고등학교에 딱

가는 거지 … 태화가 그랬던 경우도 더 열악했던거야 여기보다(전직 방직공장,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50대 여성).

우리는 거기서 원사라고 하죠. 그것 받아서 꼬는 것 이걸 하는 공장이었는데 … 가난해서 돈 벌어서 야간 여상 다니면서 일하고(김명숙).

태화, 고합(고려합섬), 효성(동양나일론)이나 태광(산업)이 그나마 많았죠. 비율로 따지면 잘 모르겠는데, 적어도 1/3이상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90년도 초반이었는데, 그때만 해도 1/3 이상이 여성이었고, 그 이전에는 직물까지 했었던 것 같고요. 제가 효성 입사한 게 92년도인가 그래서 그때는 직물 기계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하려고 방치되어있는 상태였고, 그 이후에는 섬유를 뽑아내기만 하는 이런 공장이었는데, 그때는 여성 노동자가 상당히 있었고…(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노동운동·정치인 경력, 50대 여성).

산업화 과정 중의 여성으로 방직공장과 섬유공장에 근로하였던 어리거나 젊은 여공 이외에도 김명숙²⁵⁾씨는 목재공장에서 종사하던 30-40대 여성들이 있었다고 회고한다.

이제 10대말에서 20대는 직물이나 방직일 같은 걸 했고 ○○종합목재 같은 경우에는 40대 … 결혼한 30대부터 미혼도 조금 있었을 것이고 4-50대가 주로 있었죠(김명숙).

방직공장과 화섬공장 그리고 목공품 공장 등에는 여성근로자들이 있었고, 그 녀들은 중학교를 다니는 어린 여성들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

25) 지역사회의 여성운동과 공동체를 일구는 풀뿌리 운동, 교육문화 활동 등을 하고 있는 50대의 김명숙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력을 밝히지 않은 채 화섬공장에 들어가 소위 '위장취업자'로 노동운동을 하였다고 스스로를 설명하였다. 울산 여성에 대한 기록, 일하고 노동하며 지역을 함께 만든 울산 여성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의 중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하는 그녀는 실명거론과 더불어 연구 전 과정에 많은 도움을 주셨다.

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경공업분야에서 일한 울산 여성들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전자부품, 의류(작업복, 합성피혁 장갑, 신사복), 완구 등을 생산하는 업종이 밀집되었던 '마산수출자유지역의 1971년 통계는 경공업 분야에 여성들이 밀집되었던 울산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²⁶⁾

울산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는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에 이르는 30여 년 간의 경제 성장기 동안 절대적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산업현장에 참여하였던 울산 여성들은 다른 지역의 여성들보다 또 울산지역의 일하는 남성들보다 더욱 젊었던 것을 알 수 있다. 15~19세 울산 여성의 21.5%, 20~24세 울산 여성의 71.5%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고 이 비율은 같은 연령대의 울산 남성이나 전국의 남성과 여성보다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강미화, 2002).

〈표 6〉 여성과 남성의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1998)

연령	남성		여성	
	울산	전국	울산	전국
15-19세	8.9	9.2	21.5	12.1
20-24세	68.7	54.3	71.5	61
25-29세	88.2	86.9	39.7	51.8
30-34세	97.6	96.4	37.8	47.3
35-39세	97	96.3	43.2	58.5
40-44세	95.4	95.3	54.5	63.5
45-49세	93.4	94.1	51.1	61.5
50-54세	86.1	92	45.2	55.2
55-59세	74.8	81.9	44.8	51
60세 이상	52.6	52.2	21.2	28.1
전체	79.7	75.2	42	47

자료: 김태홍·주재선, 1999; 강미화, 2002에서 재인용.

26) 1971년 당시 11개 공장의 2,759명의 종업원 중 78.2%가 여성이었고, 여성들은 주로 장 식용전구, 작업복, 코일, 완구, 합성피혁 장갑이나 신사복 등의 생산에 남성들은 전자 품, 주물, 전선 및 철제기구 생산에 더욱 집중되어 있었다.

③ 서서히 지속적으로 진행된 구조조정

염포, 미포의 자동차와 조선공장의 본격적으로 건설·가동되는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1972~1976)에 이어서 본격적인 중화학공업육성과 공업단지가 형성된 제4차(1977~1981)계획이 진행되며, 경공업산업은 점차 축소, 국가 산업 축은 중화학산업으로 이전되었다. 임금과 규모의 경쟁력이 약해지며 방직, 목재, 화섬산업 분야 기업들은 업종전환, 해외 공장이전 등의 가도를 이어가고, 여성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거나 새로운 일을 위해, 혹은 결혼 등으로 흩어졌다.

여성노동자들이 산업현장에서 사라지는 과정은 짧은 시간동안 대규모로 이루어졌다기보다 서서히 그리고 조금씩 순차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남녀 인터뷰이들은 동의하고 있었다. 그 과정은 때로는 정리하고, 때로는 인력 확충 중단 그리고 비정규직화나 하청·용역화의 과정으로 기억되고 있었다.

그때 구성자체가 ○○목재는 목재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같이 샌딩 작업이라든지 작업의 30%가 여성이 했지요 그러면서 정리하고 되면서 많은 분들이 청소로 ... ○○목재는 노동조합이 강력해지면서 울산공장을 정리하게 되죠. 울산은 금속 자동차계열이 많다보니까 임금이 좀 높죠. 용인이나 경기도 쪽에 목재공장이 많이 있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임금이 높은 거예요. (임금이) 썬 편인데도 계속 비교하면서 더 달라고 하니깐 부담되니까 (기업들이) 정리를 한 거죠. ...오랜 기간 걸쳐서 아예 이제 자동차, 중공업으로 남성들은 다 진출 보내고 수년간에 걸쳐서 정리가 된 것이지요(김명숙).

○○은 아주 꾸준히 진행을 해온 케이스거든요. 92년 다닐 때 만해도 조합원이 1,800명이다 이랬다면 2000년도에는 절반정도가 줄어든 상태였거든요. 꾸준히 진행되었고 ... 실도 천도 짜고 했었는데, 돈이 안 되니까 기계를 다 팔고 타이어에 들어가는 타이어코드 그게 80퍼센트 정도 시장이 남아있다 하더라고요. 카펫트 이런 게 다 ○○에서 나오던 거잖아요.

… 2000년도에 공장이 거의 정리 되었죠. … 정규직 여성조합원은 대부분이 하청으로 전환되었고…(전직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 노동운동 활동가, 40대 남성).

회사를 그만둘 당시에는 그 인원이 많이 줄어 한 800명 정도 되었던 것 같아요. … 그 인원 감축은 어느 날 갑자기 이뤄진 것이라기보다 자연스럽게 퇴사자를 충원하지 않거나 하는 방식으로 서서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거죠(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40대 여성).

2000년에는 가동부진에 따른 대규모 적자를 겪는 듯 화섬산업의 법정관리와 워크아웃이 줄을 이었던 시기, 울산 여성근로자들은 ‘고용의 유연화’ 혹은 일자리를 잃거나 떠나는 일을 직접적으로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인터뷰이들은 당시의 구조조정과 워크아웃 과정이 남성들을 완전히 비껴간 것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여성 노동자에게는 거의 전면적인 변화와 노동시장에서의 퇴출 과정이었음을 되짚어 회상하였다.

울산공장을 놓고 봤을 때는 여자가 많을 수도 있는데, 따져보면 남자가 좀 더 많죠. 회사는 이름만 바뀌고 그 사람 그대로 간거죠. … 정규직 젊은 여성분들은 안 받죠. 비정규직도 젊은 여자들은 안 받아요 … 이후로는 정규직을 거의 안 뽑죠. 그 전에도 신규사원들을 안 뽑았어요. 90년 초,중반만 해도 고졸, 고3들 취업생, 중학교 졸업하고 산업체 학교 들어와서 일하는 정규직이 있었는데, 그때는 비정규직이 없었으니까. 그렇게 일했던 여성들이 많았지, (이제는) 없죠(전직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 노동운동 활동가, 40대 남성).

지금은 그 회사에 직접 소속된 사람들 수가 잘은 모르지만 많이 작을 거예요. 얼핏 기억하기로 쟁의가 있었을 때에, 회사의 최종 고용 인원 규모가 300에서 400정도에 불과하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 쟁의는 … 마무리되었죠. 1년이 안 걸렸고, 직권조인해서 … 다시 출근하고 이후에 대량

해고도 있었고 … 한 200명 정도 …그래도 몇 가지 핵심부서들은 아직도 정규직이 더 많을 거예요. 원사(原絲)를 뽑는 방사과나 그 뭐지 … 부서 이름이 기억이… 재료를 가지고 와선 녹이는, 아 그렇지 중화과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40대 여성).

중화과가 구조조정 와중에도 살아남았고 대부분의 인력이 남성들이라는 인터뷰이의 말에 연구진은 중화과정이 많은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다른 생산라인과는 다른 과정인지를 질문하였다. 15년간 화섬산업에서 근로하였다는 40대 인터뷰이는 그것은 숙련이나 기술력의 문제가 아니라고 대답하였다.

그건 숙련도 문제나 힘의 문제가 아니라기보다 회사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핵심인력들은 있어야 하지만 나머지는 … 그 부서들엔 정규직이 많았고, 남자들이 많았어요. 원래(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40대 여성).

비단 방직공장과 화섬공장에 한정되지 않고, 여성들이 주로 근로하였던 크고 작은 공장들은 서서히 지역을 이탈하거나 사라져갔고, 이제까지 함께 생산현장에 참여하였던 여성들은 그나마 서서히 고용형태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여성의 근로유형은 화섬 산업에서도 자동차산업에서도 주요한 구조 조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IMF 이후에는 여성을 채용을 하지 않으니까 … 고무공장 신발공장 베짜는 공장이 모두 여성들이었던 것이 외국으로 중국으로 다 떠났고 … 식당에서든 공장에서든 정규직이었던 여성들은 이후 해고되거나, 비정규직이 되었고 전체적인 채용률이 다 낮아지면서 여성노동자들의 모습은 달라지게 된 것 같다. 1996년도 이후 생산직에는 대체 입사자²⁷⁾ 외 여성입

27) 재직하는 (남성) 근로자가 산업폐해나 안전사고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가

사자는 아예 없어요. 아예(노동조합 간부, 50대 여성).

④ 그 많던 여공들은 모두 어디로 갔나? 그리고 그녀들은 지금…

울산의 여성 노동자, 일하던 여성들은 그러나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첫 번째 답을 해준 이는 고등학교 졸업 후 15년간 화섬업체에서 근로하였고, 여공들의 처우개선과 근로환경 개선, 정리해고에 대해 노동운동에 참여했다는 40대 인터뷰이었다.

그녀는 최소한 화섬산업에 종사하던 그녀들 중 적지 않은 수가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다’고 대답하였다. 같은 공간, 같은 노동을 하며, 그러나 다른 회사, 다른 직급 그리고 다른 임금을 받으며, 이른바 고용의 유연화에 의한 변화라는 것이다.

고용형태만 바뀐 거죠. … 소사장제도라고 하죠. 과거에 한 부서에 인원이 100명이라면 20명 단위로 잘라서 조장, 반장들에게 하나씩의 업체를 주고 사장을 만드는 거죠. 소사장… 그리고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똑같이 해요 작업자는. 다만 나는 퇴사를 하고 새로 취직을 했죠. 역시 정규직으로 하지만 소사장의 회사로 … 회사입장에서 보면 그게 협력업체들이겠죠. 정규직이야 정규직이죠. 더 적은 임금을 받고 더 작은 회사에서 … 뭐 그렇게 … 변한 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어요. 이제는 좀 더 나이가 들었겠죠? 젊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을 선호하지도 않을 거고 글썽요(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40대 여성).

정치인 경력이 있는 노동운동가인 50대 전직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자였던 여성 인터뷰이와 전직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자였던 40대 남성 인터뷰이는 그러나 현재 그 자리를 지키고 그 곳에 있는 여성노동자들, 이제는 더 이상 젊지 않은 화섬산업의 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열악하거나

족(부인이나 자녀)이 대신 근로하는 경우가 대체입사자라고 설명하였다.

어려운 지경인가를 설명했다.

○○에 아는 동생이 20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데, 제가 최근에 그 친구를 보면서 제일 심각하게 느끼는 건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일한다는 거예요. … 시간이 많이 흐르면서 4조 3교대도 생기고, 3조 2교대도 생기고 근무 형태가 많이 바뀌었는데도 ○○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안 바뀌고 있어요. 3조 3교대를 하더라도 한 달에 두 번 정도는 다른 근무조가 맞교대를 하고 한조는 완전 쉬는 방식으로 그나마 숨통이 트이는 형태인데 … 주말은 기본적으로 없어요. 거의 일만하면서 산다고 봐야 해요 … 그 친구가 일하는 공장이 특히 작년에 어떤 섬유를 생산하는 실험을 했어요. … 작업하는 과정이 전기적으로 불똥이 튀고 분진이나 이런 게 말도 못해요. … 어떻게 장시간 노동을 진행하고 있는지 얼마나 불법적인 유해물질들이 쓰여 지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게 특히 여성들이 밀집되어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매우 심각하다는 거죠…(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노동운동·정치인 경력, 50대 여성).

특히 화섬3사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노동조합 결성이 불가능해진 이후 3조 3교대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그녀들의 근로환경은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고 쉬어 파악되기 어려운 것이므로 더더욱 심각한 상황일 수 것이 그녀의 경고였다. 심각하게는 그녀들의 건강이나 생활은 과거 여성노동자들이 파업과 쟁의로 요구하였던 기본적인 건강권과 근로시간 조정문제들로부터 크게 나아진 점이 보이지 않는 것 같다는 우려가 함께였다.

제작년에 그 친구가 17년 정도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된 게 최저임금 관련해서 준비를 하면서 대기업이고 여성이고 그 당시에 최저임금보다 170원 인가를 더 받더라구요. 기본급을. 그런데 나머지는 잔업수당, 휴일근무수당 이런 걸로 채워지는거죠. 2012년도에 17년차인 친구가. 최저임금보다 170원 많은 금액을 받고 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경악스러웠죠(전

직 화섬산업 생산직 근로, 노동운동 활동가, 40대 남성).

두 번째 응답으로 인터뷰이들은 여성들은 이제 대규모 사라진 일자리와 구조조정의 경험과 함께 어떤 이는 시간의 흐름으로 결혼과 출산 등으로 더 이상 일하지 않거나, 혹은 신발, 섬유, 화섬과 같은 경공업 산업을 끝으로 더 이상 여성에게 과거와 같은 대규모의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산업환경에서 돌봄과 간호와 같은 새로운 노동시장으로 이동해가거나, 혹은 식당, 청소, 자동차시트 제작 아르바이트 등의 노동을 하며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된 사람이 있고, 간호조무사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음... 여전히 회사 다니는 사람도 있었지요. 그렇지만 공장보다는 서비스업 쪽으로 많이 나간 거 같아요. 공장에 인력들 말인가요? 크게 줄어들지 않았을걸요? 작은 모르겠지만, 그 산업은 충분히 고도화되었고, 더 고도화된 것은 아마 없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전에 일하던 만큼의 사람들이 일을 하겠죠. 근데 이전에는 그 사람들이 〇〇라는 회사의 정규직 직원이라면, 이제는 다른 회사의 직원이면서 같은 일을 한다는 차이는 있겠죠 (전직 화섬산업 생산직근로, 40대 여성).

생협 활동을 하기도 하고, 풀뿌리 운동 뭐 그런 것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나처럼 이런(교육문화 활동과 시민운동)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노동운동에서 상처받아서 지역을 떠나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보험, 방문판매 뭐 그런 일을 하기도 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 중에는 청소노동자나 식당노동자로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이젠 더 일하지 않고 자식들 보살핌 받으며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지요 ... 우리는 그 시대에 산업현장에서 한국의 노동역사에서 참 중요한 역할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우리들에 대한 기억은 우리 스스로도 잘 못하고 있지 ... 기록자체가 하나의 독립된 일이고 영역이잖아요. 일하는 것도 바깥고, 설령 노동운동을 한다는 여성노동자라 하더라도 당장 조합활동과 생

산활동을 하는 것만으로도 바빴지요. 더군다나 여성노동자들은 방직공장과 화섬공장에서 엄청나게 많은 경험을 하였고, 노동조합활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 거의 묻히고 중공업 중심의 남성노동자 밖에 안 보지요(김명숙).

김명숙씨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되는 '울산의 여성에 대한 기록 작업으로는 아마도 그리 대단한 것을 찾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는 후문과 함께 대신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반드시 이 작업을 지속해 줄 것을 몇 번이고 당부하였다. 어떤 도움을 주더라도 울산 여성 뿐 아니라 우리 여성의 역사로 참으로 기록되어야 하는 많은 이야기와 다양한 역사들 무엇보다 여성들이 존재한다고 강조하였다.

3. 결론

산업시대의 여성을 찾고자 울산 여성의 삶에 대해 고찰하고자 했던 인터뷰 과정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점차 몇 가지 질문으로 요약되었고, 응답들의 답은 답이라기 보다는 새로운 질문으로 혹은 '울산 여성'을 찾아내어야 한다는 요구들로 이어지며 마무리되고는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인터뷰이는 '울산의 여성은 누구이며, 그녀들은 어디에 있었으며 그리고 지금 그 많은 여성노동자, 젊은 여공들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희망하나마 큰 윤곽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산업시대 울산 여성들은 여공이거나 혹은 산업역군으로 존재하였고, 그녀들은 산업의 구조조정과 함께 천천히 조금씩 그녀들이 존재하던 산업현장에서 또 다른 산업현장으로 이동하거나, 혹은 그녀들은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음에도 그 자리에서 더 이상 개방되지 않아 그녀들의 모습을 쉬이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산업현장을 비록 떠났다 하더라도 산업시대 울산 여성, 여전히 그곳 산업도시 울산에서 살아가며, 도시를 일구고 그 곳에서 그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들의 결론이었다.

제이콥스(2010)는 '다양한 사람들에 대한 기꺼운 수용과 관용적인 분위기가 '위대한 도시'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한다. 러너(2006)는 '여성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을 '그 창을 통해 새로운 세계로 다가가는 통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여성들, 울산지역 여성노동자들을 비롯하여 도시와 사회, 산업과 삶의 절반 이상의 역할을 해왔고 여전히 하고 있는 여성의 삶을 기록하고 공유하는 것은 '위대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일 것이다. 더불어 여성들의 눈, 여성의 삶의 궤적을 통해 과거와 미래, 지역사회와 공동체를 조망하는 것은 새로운 발전의 창을 열어가는 통로이기에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과제이다.

참고문헌

- 강미화(2002), “울산지역 여성 노동의 현황과 대책”, 울산발전연구원 복지
도시·여성도시 울산 만들기 심포지엄 자료집 발표문(2002.11.11).
- 기든스, 앤서니(2009), 『현대사회학』, 김미숙 외 옮김, 서울: 을유문화
사, Giddens, A.(2006), *Sociology*, 5th Edition, Cambridge: Polity
Press.
- 김원(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역사의』, 서울: 이매진.
- 김준(2003), “1970년대 현대조선 노동자들의 삶과 의식”,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이종구 외 엮음, 파주: 한올아카
데미, 89-125쪽.
- 김태홍·주재선(1999), 『지역여성경제활동과 인력전망』, 서울: 한국여성정
책연구원.
- 김희재(2006), “울산 여성의 일상적인 삶”, 『현대울산인의 삶과 문화』, 박재환
외, 울산: 울산학연구센터, 213-240쪽.
- 노동부 노사협력복지팀(2005), 『맞대니 잘~되네』, 서울: 노동부.
- 러너, 거다(2006), 『왜 여성사인가』, 강정하 옮김, 서울: 푸른역사, Lerner,
G.(1997), *Why History Matters: Life and Thought*,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박혜영(2011),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정책의 여성주의적 개선 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여성학협동과정 박사학위 논문.
- 소콜로프, 나탈리(1996), 『여성노동시장이론』, 이효재 옮김, 서울: 이화문고,
Sokoloff, N. J.(1980), *Between Money and Love: The Dialectics
of Women's Home and Market Work*, New York: Praeger.
- 오재환(2006), “출산과 아이들, 육아와 교육”, 『현대 울산인의 삶과 문화』,
박재환 외, 울산: 울산학연구센터, 75-108쪽.
- 우드, 줄리아(2007), 『젠더에 갇힌 삶』, 한희정 옮김, 서울: 커뮤니케이션

- 복스, Wood, J. T.(1994), *Gendered Lives: Communication, Gender and Culture*, Belmont, Calif.: Wadsworth Publishing.
- 울산광역시(2014), 『2014 울산통계연보』.
- 울산상공회의소(1983), 『울산상공회의소 20년사』,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 _____ (2013), 『울산상공회의소 50년사』, 울산: 울산상공회의소.
- 유경순·정경원·김원(2009), 『현자노조 20년사』, 서울: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자동차지부.
- 이배용 외(1999), 『우리나라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서울: 청년사.
- 이승원(2011), 『사라진 직업의 역사』, 서울: 자음과 모음.
- 장병익(2006), “울산 산업사”, 『울산학연구』, 창간호, 12-181쪽.
- 정승국(2003), “70년대 자동차기업의 작업장 저항에 대한 연구”, 『1960-70년대 노동자의 작업장 경험과 생활세계』, 이종구 엮음, 파주: 한울아카데미, 127-157쪽.
- 제이콥스, 제인(2010),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 유강은 옮김, 서울: 그린비, Jacobs, J. (1989),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Toronto: Random House.
- 조주은(2004), 『현대가족 이야기』, 서울: 이가서.
- 코완, 루쓰(1997), 『과학기술과 가사노동』, 김성희 외 옮김, 서울: 학지사,
- Cowan, R.(1985), *More Work for Mother: The Ironies of Household Technology from the Open Hearth to the Microwave*, New York: Basic Books.
- 틸리, 루이스 A. · 조앤 W. 스콧(2008), 『여성 노동 가족』, 김영·박기남·장경선 옮김, 서울: 후마니타스, Tilly, L. A. and J. W. Scott(1987), *Women, Work, and Family*, Hove, East Sussex: Psychology Press.

〈인터넷자료〉

통계청(2010), “인구동향 표본조사”, <http://www.kosis.kr>(2014.10.10).

통계청(2012), “주민등록통계”, <http://www.kosis.kr>(2014.10.11).

〈신문기사〉

『오마이뉴스』, 2015.6.1, “현대중공업 구조조정 중단선언… 하청노동자는?”.

(논문 투고일: 2015.04.29, 심사 확정일: 2015.06.01, 게재 확정일: 2015.06.16)

〈Abstract〉

Women in the Industrial Area: Where Have All the Mill Girls Gone?

Park, Hye Young* · Park, Kumsik**

Since the 1962 ‘National Industrial Zone’ designation, Ulsan has undergone explosive population growth. In 1962, as a traditional rural region, the population of Ulsan was about 85,000, with 97.5 females for every 100 males. This study examines the lives of women and their leading role in shaping industrialization and in the on-going development process of Ulsan as a ‘national industrial zone’. Women and their lives as well as some other social minorities and socially neglected phenomena have not been represented in national, regional or local histories and archives. This has also been the case in Ulsan. Listing and reviewing the past lives of women in Ulsan in the earlier industrializing period allows us to understand the social role of Korean women in that time, while shedding light on the changing shape of women’s status and position during the industrial development.

Key words: gender and industry, women labour in light-industry, Ulsan Women, industrialization and gender, women in industrialization

* Lead author, Guest Researcher, Women’s Studies Center, Pusan National University

** Co-author, Researcher, Busan Woman and Family Development Institute